

나혜석과 불교

- 작가적 예술혼과 불교적 보리심 -

한동민*

• 목 차 •

I. 머리말

II. 나혜석의 불교 입문

III. 그림 여행을 통한 예술혼의 실천

IV. 나혜석과 해인사의 풍광

1. 해인사와 나혜석 관련 사진들

2. 나혜석의 수필 「해인사의 풍광」

V. 나혜석의 수덕사와 수덕여관 시절

VI. 맺음말

* 수원화성박물관장.

© 『大覺思想』 제39집 (2023년 6월), pp.37-79.

한글요약

본 논문은 나혜석 소장 사진들을 통해 불교 관련 내용을 고찰하는데 있다. 수원시립미술관에 기증된 나혜석 소장 <사진첩>에는 90여 장이 사진이 있다. 이러한 사진을 통해 나혜석을 보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사진들 가운데 불교와 관련한 것은 해인사 관련 4점, 불국사 관련 2점 및 승려가 되기 전의 <김일엽 씨> 사진 등 6~7점이다. 이들 사진을 통해 나혜석과 불교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나혜석은 1930년 이혼을 하면서 불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해 수송동 각황사(현 조계사)에서 불교 강연을 듣고 1933년부터 본격적으로 불교 신자가 되었다. 특히 김일엽이 승려가 되면서 그들의 관계는 더욱 밀접하게 되었다.

나혜석은 1931년 일본 제국미술전람회에 입선하면서 화가로서 자부심을 회복하였다. 나혜석은 불교 신자가 됨으로써 새로운 삶에 대한 활력을 얻게 되었다. 이로써 나혜석은 ‘작가적인 예술혼’과 ‘불교적 보리심’을 자신의 삶의 두 기둥으로 삼았다.

나혜석은 전국의 명승과 사찰을 찾아 그림을 그리는 것을 일삼았다. 1931년 금강산 만상정, 1932년 해금강 총석정 어촌, 1933년 수덕사, 1934년 해인사 등지를 찾아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썼다.

또한 최범술과 인연으로 1936~1937년 해인사를 찾았고, 임환경 스님 등과 찍은 사진 및 불교계 비밀조직 만당(卍黨)의 주도 인물인 김상호 일행과 해인사에서 함께 한 사진이 남아 있다. 이때 사진들은 법복을 입은 모습으로 불교에 침잠된 삶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나혜석의 마지막 글이 「해인사의 풍광」이라는 점에서 해인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셈이다.

특히 승려가 된 김일엽이 머물렀던 예산 수덕사 인근 수덕여관을 자주 찾았다. 나혜석은 1938년부터 1944년 12월 해방 직전까지 수덕여관을 근거지로 삼아 치열하게 그림을 그리는 ‘화가 나혜석’으로 살았다. 이때 장욱진과 이용로, 김태신 등을 만났다.

따라서 나혜석의 후반기 생애는 ‘예술혼과 보리심’을 키워드로 하는 붓을 든 화가이자 불교 신자로서 비승비속의 대승적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나혜석 소장 사진첩, 김일엽, 수덕사, 수덕여관, 해인사, 최범술, 만당

I. 머리말

수원시립미술관에 나혜석 소장 <사진첩>이 기증되었는데, 사진첩의 90여 장이 넘는 사진들은 나혜석을 읽고 해석하는데 매우 유용한 텍스트라 할 수 있다.¹⁾ 사진 설명이 상대적으로 친절하게 붙어 있으며 붉은 글씨는 나혜석 자필이다. 특히 나혜석이 들어 있는 사진에는 거의 대부분 등장인물들과 함께 ‘羅’를 표기하고 있다. 나혜석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의식이 상당히 강한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전체 사진 가운데 불교 관련 사진은 많지 않지만 나혜석의 삶, 특히 후반기 생애를 읽고 해석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첩 속 불교 관련 사진은 다음과 같이 7장이 있다.

1. <金日祚氏家族, 金敬山, 羅蕙錫>(1936. 6. 20) : 해인사 삼문 앞
2. <金相浩氏一行> : 해인사 장관각 앞 김상호 일행
3. <~寺ニテ ○○, 敬山, 羅蕙錫> : 해인사 홍제암 앞 승복입은 사진
4. <海印寺 弘濟庵前ノ羅> : 해인사 홍제암 부도밭 앞
5. <慶州佛國寺ニテ阿部充家氏一行中 羅> : 불국사에서 아베 일행
6. <佛國寺ホテル前 羅> : 불국사 호텔 앞 아베 일행
7. <金一葉 氏> : 입산출가 이전 김일엽

즉 불교 및 사찰 관련 사진은 해인사 관련 4장, 불국사 관련 2장 등 모두 6장이다. 이 가운데 해인사 관련 사진이 4장으로 가장 많은 셈이다. 그리고 승려가 되기 전의 <김일엽(金一葉) 씨> 사진 1장이 있는데, 나혜석의 후반기 삶에 불교적 영향과 수덕사와 수덕여관 관계에서 가

1) 나혜석의 사진 앨범에 대하여는 다음의 글이 있다.

윤범모, 「나혜석 탄생 120주년 기념 특별전의 의의」, 『시대의 선각자 나혜석을 만나다』, 수원시립미술관, 2016.

권행가, 「가족이라는 경계의 안과 밖 : 나혜석의 사진앨범에 대하여」, 『수원 미술연구』 1, 2017.

한동민, 「나혜석 <사진첩>을 통해 본 나혜석과 불교」, 『제24회 나혜석바로 알기 심포지엄』 정월 나혜석기념사업회, 2021. 10. 30.

장 중요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불교 관련 사진에 포함하였다.

학창시절 나혜석은 기독교적인 분위기 속에 자랐다. 수원 종로교회에서 시작한 삼일여학교를 졸업하였고, 일본 동경 유학시절에는 세례를 받았을 만큼 기독교의 자장 속에서 성장하였다.

1919년 3.1운동으로 구속된 나혜석의 신문조서를 통해 기독교 신앙과 세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대는 예수교를 믿는가?”, “그렇다. 소학교 때부터 믿었는데 대정 6년 12월 동경의 조선교회에서 조선인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혜석은 1917년 12월 당시 일본 동경에서 목회 활동을 하던 조선인 임중순(林鍾純) 목사에게 세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1915년 동경여자친목회 졸업생 축하회가 조선인 교회당에서 임중순 목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고, 나혜석은 김덕성(金德成)·허영숙(許英淑)과 함께 졸업생 답사를 한 적도 있다.²⁾ 임중순은 장로교회 목사로 1921년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세계 장로교총회 대표회에 참석하기도 하였다.³⁾ 동경여자유학생의 여자친목회의 졸업 축하회가 교회당에서 목사의 참석 아래 이루어질 만큼 당시 일본 유학생 사회는 기독교적 분위기가 압도하였던 셈이다.

그러나 나혜석의 후반기 삶에서 불교의 영향과 자장은 깊고 넓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나혜석과 불교 관계를 주목한 논문은 없었던 것 같다.⁴⁾ 이에 기독교인이었던 나혜석이 1930년 이후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과 이후 불교인으로서 삶과 의미를 사진들을 통해 찾아 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⁵⁾

2) ‘三千里싸론’, 『삼천리』 7-2호(1935. 2), p.221.

3) ‘임중순 목사의 도미’, 『신한민보』 1921. 8. 4.

4) 방민호, 「나혜석과 수덕사 - 그 세속적 수난의 가장자리」, 『제24회 나혜석 바로알기 심포지엄』 정월 나혜석기념사업회(2021. 10. 30)에서 발표되었고, 같은 제목으로 『춘원연구학보』 23(2022. 4)호에 수정 보완되어 발표되었다.

5) 이 글은 『제24회 나혜석바로알기 심포지엄』 정월 나혜석기념사업회(2021. 10. 30)에서 발표한 「나혜석 <사진첩>을 통해 본 나혜석과 불교」를 대폭

II. 나혜석의 불교 입문

나혜석이 불교계와 유의미한 인연을 맺은 것은 1929년 수원포교당(포교사 손계조)에서 개최한 개인 전람회였다. 나혜석은 1927년 6월 19일부터 유럽과 미국을 거쳐 김우영과 1929년 3월 12일 부산에 도착함으로써 20개월이 넘는 긴 해외여행을 마쳤다. 이후 셋째 아들 김건(金建)을 동래 시댁에서 낳은 뒤 백일이 지나자 1929년 9월 23~24일 이틀에 걸쳐 용주사포교당, 즉 지금의 수원사(水原寺)에서 ‘나혜석 여사 구미 사생화 전람회’를 개최하였다.⁶⁾ 유럽 여행 당시 그린 작품과 구입한 소품들 위주의 전시였다. 이는 나혜석의 귀국 후 첫 번째 전람회이자 고향 수원에서 한 최초의 미술전람회였다. 동시에 수원지역 최초의 조선인 미술전람회이기도 했다. 당시 수원 공회당이나 화성학원 강당 등에서 이루어진 실내 전시에 비해 야외 전시로 치러진 나혜석 미술전람회는 종교시설에서 이루어진 전시회라는 특징과 더불어 수원포교당(수원사) 최초의 전시회이기도 했다. 이듬해 1930년 전국 최초로 수원에서 프롤레타리아미술전람회(제1회 프로미전)가 개최될 수 있었던 것도 나혜석 미술전람회가 열렸던 선례가 있어서 가능했다. 1929년 9월 귀국 전람회가 수원포교당에서 개최되었다는 것은 나혜석과 불교계라는 고리를 발견할 수 있는 첫 접점이다. 그러나 이는 나혜석의 불교적 신심이 작용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다만 나혜석과 불교를 이해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사건인 것은 분명하다.

나혜석은 1930년 이혼을 한 뒤 본격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는 이혼이라는 인생의 풍파에서 안식과 평화를 얻고자 하는 심리작용과 함께 당대 김일엽을 비롯한 신여성들의 불교적 분위기가 한 몫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정 보완한 것이다.

6) ‘나혜석 여사 구미 사생화 전람회’, 『동아일보』 1929. 9. 23.

1930년 이후 1935년 수원으로 낙향하기 전까지 나혜석은 서울 수송동 일본집 2층에 혼자 살며 그림 그리기에 전념하였다. ‘수송동 일본집 2층’은 수송동 46-15번지로 추정되는데,⁷⁾ 이곳에서 나혜석은 1933년 2월 ‘여자미술학사’를 개설하였다. 나혜석이 아꼈던 후배로 조선일보 여기자 최은희는 “수송동 의친왕의 소가인 목조 2층집에 미술연구소를 내고 개인지도를 하는 한편 초상화를 그려 팔아서 생활유지를 하기도 하고…”⁸⁾라며 수송동 2층 목조건물이 의친왕의 소유로 이해하고 있다. 여자미술학사를 운영하던 수송동 시절은 나혜석이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시기였다.

그러나 김일엽이 1931년 승려가 되기로 결심하고 경성에서 나혜석을 만나 속세를 접고 여승이 되겠다고 속내를 털어놓을 때 나혜석은 “현실 도피의 방법으로 종교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면박을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1933년 김일엽의 입산 출가를 전후하여 나혜석은 확고한 불교신자로 자신을 내면화하고 있다.

三人은 作伴하여 安國洞으로 向하였다. 거기는 부처님 앞에 供養이 벌여지고 그 앞에는 生日當者의 祝文이 놓여 있다. 僧들은 장삼을 입고 목탁을 두드리고 經文을 외우며 절을 한다. 우리도 따라서 했다. 이것을 마치고 房으로 들어가 앉으니 이는 新女性이 하나씩 둘씩 모여 10여 인이 되었다.⁹⁾

나혜석은 수송동 각황사 뿐만 아니라 안국동 선학원을 드나들었고, 당대 신여성 10여 명과 함께 불교를 신앙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 이는 적극적으로 불교를 수용하고 있었던 김일엽의 영향인 동시에 당시 여성계에 불교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과 태도가 확산되었던 영향도 있었다.

7) ‘수송동에 여자미술학사’, 『동아일보』 1933. 2. 4.

8) 최은희, 「최초의 유화가 나혜석」, 『한국개화여성열전』 추계 최은희전집 4, 조선일보사, 1991.

9) 나혜석, 「女人日記(3)-모델」, 『조선일보』 1933. 2. 28.

나의 일요일은 說法을 듣는데 제공하려고 생각한다. 오전에는 각황교당에서 듣고, 오후에는 禪學院에서 들었다. … 해질녘에 돌아온 나는 남편의 멩렬한 화풍이를 받았다.¹⁰⁾

김일엽이 본격적으로 삭발하고 입산하기 전에 수송동에 살던 나혜석도 각황사에 다녔다. 이 시기 나혜석과 김일엽은 수송동 각황사와 안국동 선학원에서 함께 법문과 설법을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1933년이 되면 나혜석의 불교적 신행은 확고한 것이 되었다. 이는 나혜석을 방문하고 쓴 잡지 기사(방문기) 3편이 잘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나혜석의 불교 수용과 과정 및 삶의 일단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방인근과 전유덕의 방문기이다. 즉 1933년 3월 8일 수요일, 방인근(方仁根)은 나혜석과 절친인 부인 전유덕(田有德)



<사진 1> 김일엽

과 함께 수송동 나혜석 집을 방문하였다. 이들 부부를 비롯하여 이광수 부부, 전영택 등과 나혜석은 친하게 지냈다. 춘원(春園) 이광수의 부인 허영숙은 춘계(春溪), 전영택의 여동생 전유덕(田有德)은 ‘춘강(春江)’, 남편 방인근은 ‘춘해(春海)’로 지었다.¹¹⁾ 전영택의 호 ‘늘봄’도 장춘(長春)으로 사용하였으니 봄의 향연이다. 1933년 봄 전유덕 부부는 흐리고 몹시 추위 바람도 싸늘한 봄날 나혜석을 찾았으나 마침 외출 중이라 만나지 못하였다. 나혜석의 2층 넓은 일본식 다다미방에는 그림이 가득하였고, 방 가운데는 책상이 놓이고 그 옆 화로에는 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10) 김일엽, 「女人日記(5)-人生萬能」, 『조선일보』 1933. 3. 2.

11) 김병익, 『한국문단사 1908-1970』, 문학과 지성사, 2003.

女史는 근래 一葉 女史의 권고로 불교를 신봉한다고 한다. 도꼬노마(床間)에는 무쇠로 만든 미술적인 佛像이 노혀있다. 우리는 향불을 피여 주었다. 어쩐지 女史의 쓸쓸한 기분이 방안에 그득한 것 가뒸다. 그리고 인생의 적막을 느끼었다.¹²⁾

방인근은 나혜석이 김일엽의 권고로 불교에 입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나혜석은 1933년 시점에 불상을 집에 두고 향불을 피우며 불교에 확실하게 귀의하고 있다. 이는 나혜석의 불교 입문에 김일엽의 영향이 컸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글이기도 하다. 당시 김일엽도 아직 공식적으로는 출가하기 전이지만 김일엽은 나혜석보다 몇 년 앞서 불교에 귀의하였다. 즉 김일엽은 잡지 『如是』에 글을 쓰며 가까이 있는 불교사(佛敎社) 사람들과 친해졌다. 『如是』는 방인근이 편집 겸 발행인이었던 잡지로 1928년 6월 창간호를 냈지만 2호를 내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 김일엽은 『佛敎』지의 문예란을 담당하면서 점차 불교에 귀의하게 되었다. 즉 1928년 즈음부터 김일엽은 불교에 심취하며 불교인이 되어갔는데, 이면에는 백성욱(白性郁, 1887~1981)의 영향이 컸다.¹³⁾

둘째, 『삼천리』 잡지의 부인기자 방문기이다. 이미 나혜석이 독실한 불교신자가 되어 기자에게 불교에 대한 설교를 할 정도였고, 수송동 각 황사에 다니며 불교 공부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준다.¹⁴⁾ 각황사(覺皇寺)는 1910년 도심 포교를 위해 성안 수송동에 건립되면서 조선불교의 중심무대가 되었고, 이후 조계종의 본사인 조계사가 되었다.

한편 나혜석의 수송동 시절에 조선불교청년동맹의 불교 강연회 등이 활발하게 개최되었다.¹⁵⁾

12) 방인근, '최근일기', 『삼천리』 1933. 4. 1.

13) 김광식, 「김일엽 불교의 재인식」, 『불교학보』 72,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5, pp.234-237.

14) 부인기자, 「화실의 개방, 파리에서 돌아온 나혜석 여사 - 여자미술학사」, 『삼천리』 5-3(1933. 3)

15) '불교청충 제1성으로 기념강연회 개최', 『조선일보』 1931. 3. 26.

조선불교의 특색과 我等의 운동- 유엽(柳葉)
 우리운동의 임무 - 김법린(金法麟)
 시대조류를 횡단하는 자 - 도진호(都鎭鎬)
 불교청년총동맹에 대하여 - 한용운(韓龍雲)

특히 각황사는 당시 매달 일요강좌를 개최하고 있었다. 강사는 김태흡(金泰洽), 이탄옹(李炭翁), 유엽(柳葉), 최영환(崔英煥), 손일봉(孫日峯), 박포명(朴抱明), 유화봉(柳華峰), 이지광(李智光) 등이었지만 주강사는 김태흡이었다. 1931년 각황사 일요강좌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⁶⁾

<표 1> 1931년 각황사 일요강좌 현황

일시	강좌명	강사
1931. 1. 4. 오전 11시	해탈득도(解脫得道)의 이상(理想)	김태흡(金泰洽)
오후 7시	견성오도(見性悟道) 석존(釋尊)의 성도(成道)	이탄옹(李炭翁) 유엽(柳葉)
1931. 1. 11. 오전 11시	불교의 천재관(天才觀)	최영환(崔英煥)
1931. 1. 18. 오전 11시	유심(惟心)에 대하여	박포명(朴抱明)
1931. 2. 8. 오전 11시	선(禪)이란 무엇인가	김태흡
1931. 2. 15. 오전 11시	실천(實踐)에 대하여	손일봉(孫日峯)
1931. 3. 1. 오전 11시	불교의 선악관(善惡觀)	김태흡
1931. 3. 8. 오전 11시	참회(懺悔)의 생활	김태흡
1931. 3. 15. 오전 11시	방일(放逸)과 정진(精進)	김태흡
1931. 3. 22. 오전 11시	현대의 불교	유화봉(柳華峰)
1931. 5. 3. 오전 11시	대비(大悲)의 검(劍)	김태흡
1931. 5. 24. 오전 11시	고해(苦海)의 법선(法船)	김태흡
1931. 7. 5.	심경 강의(心經講義)	김태흡
1931. 7. 12.	일승(一乘)의 생활	이지광(李智光)
1931. 7. 19.	왜 믿는가?	이지광

16) ‘日曜講話’ 『조선일보』 1931년도 해당 기사 종합.

1931. 8. 2. 오전 11시	불교와 생활	이지광
1931. 9. 6. 오전 11시	발고여락(拔苦與樂)	김태흡
1931. 9. 13. 오전 11시	단혹증진(斷惑證眞)	김태흡
1931. 12. 6. 오전 11시	벽암록(碧巖錄) 제창(提唱)	김태흡
1931. 12. 13. 오전 11시	삼관(三觀)의 의의	김태흡

각황사 포교사로 활동한 김태흡(金泰洽, 1899~1989)은 본명은 김용업(金龍業)이고 법명은 태흡(泰洽)이며, 아호는 소하(素荷), 금화산인(金華山人)을 사용하였다. 김대은(金大隱) 또는 석대은(釋大隱)으로 널리 알려졌다. 1931년 김태흡의 각황사 일요강좌의 내용을 살펴보면, ‘해탈득도(解脫得道)의 이상(理想), 선(禪)이란 무엇인가, 불교의 선악관(善惡觀), 참회(懺悔)의 생활, 방일(放逸)과 정진(精進), 대비(大悲)의 검(劍), 심경강의(心經講義), 발고여락(拔苦與樂), 단혹증진(斷惑證眞), 벽암록(碧巖錄) 제창(提唱), 삼관(三觀)의 의의’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김태흡과 김일엽은 일본 유학 시절부터 아는 사이였다. 김일엽이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김태흡이 각황사 포교사와 불교사 기자로 활동하면서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내가 약관(弱冠)의 몸으로 일본대학 종교과에서 수학할 무렵 동경에서 처음 알았으니까 반세기 훨씬 전이다. 귀국해서는 조계사(曹溪寺) 전신 중앙교무원에서 일을 보는 한편 지금의 중동학교(中東學校) 자리 각황사(覺皇寺)에서 포교사(布教師)로 10년쯤 있었는데 전부터 알게 된 인연으로 나는 <법구경(法句經)>을 비롯한 경전(經典)을 일엽 여사에게 가르쳤던 기억이 있다.

수덕사에 입산하기 앞서 누구 못지않게 불도(佛道)에 전념하던 학인(學人)의 모습이며, 권상로(權相老) 스님 경영으로 내가 주필(主筆)의 자리에 있을 당시 『불교』 잡지에 쉬지 않고 기고하던 정경, 그리고 입산 후에도 직접 대면해서 대화를 나누거나 문신(文信)을 교환하던 일들이 주마등(走馬燈)처럼 지금도 뇌리에 스친다.¹⁷⁾

김일엽은 각황사에서 김태흡에게 범구경 등의 경전을 배웠고, 수덕사 입산 이전에 학인의 자세로 정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각황사 강사로 최영환(崔英煥)이 참여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영환은 효당(曉堂) 최범술(崔凡述, 1904~1979)로 널리 알려진 인물로 당시 일본 유학 중 여름방학을 이용해 각황사 강사로 참여했다는 점이다. 나혜석은 1931년 각황사 강사로 활동한 최영환을 강의를 통해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후 최범술(최영환)은 본사 해인사와 사천 다솔사 주지로 활동하였다. 나혜석과 최범술의 인연은 이후 합천 해인사와 산내 암자 홍제암 및 사천 다솔사 방문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1933년 나혜석을 방문한 『신가정』 잡지 기사가 있다. 나혜석의 방에 걸려 있는 미술 작품들과 모녀 조각상 및 불상이 나란히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¹⁸⁾ 이는 ‘모성애’와 ‘불심’을 나타내는데, 당시 나혜석의 내면세계를 잘 포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의 10년 생활 중에는 階級과 貧富와 貴賤의 屈曲이 가로 내려질리고 새로 홀로 나를 웃기고 혹 울리고 즐겁게 또는 괴롭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抑制케 하는 것은 오직 내게 깊이 뿌리 박혀진 藝術心과 菩提心이다.

衆生無邊 誓願度 煩惱無盡 誓願斷
法門無量 誓願學 佛道無上 誓願成¹⁹⁾

나혜석은 10년간 화가와 어머니로서의 삶에 대한 자부심과 억울함

17) 대은, 「거룩한 법통(法統) 이은 도반(道伴)」, 수덕사 환희대, 『一葉禪文－김일엽 스님 문집』, 문화사랑, 2001, p.310.

18) 「서화협전 조선미전에 출품하는 여류화가들 - 서양화가 나혜석 씨」, 『신가정』 1933. 6.

19) 나혜석, 「畫家로 어머니로 - 나의 10년간 생활」, 『신동아』 24(3-10), 1933. 10.

서정자, 『원본 나혜석전집』, 푸른사상, 2013, p.495

및 외로움 등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그럼에도 궁극적으로 ‘작가적인 예술혼’과 ‘불교적 보리심’으로 자신을 지탱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리고 글의 마지막을 사홍서원(四弘誓願)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는 나혜석의 불교적 지향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홍서원은 또 다른 글에도 사용되고 있다.

만족은 오직 마음먹기 달린 것이다. 내가 늘 외우고 있는 釋迦의 教訓
衆生無邊 誓願度 煩惱無盡 誓願斷²⁰⁾

일체의 중생, 즉 생명체를 구제하기 위하여 깨달음의 피안(彼岸)에 도달하겠다는 맹세와 더불어 다함이 없는, 인간의 그 많은 번뇌를 끊겠다는 맹세는 나혜석의 현재와 존재적 삶에 대한 맹세가 아닐 수 없다. 신산한 삶에 대한 번민과 고뇌를 불교를 통해 끊겠다는 의지는 그의 후반기 삶에 깊고 넓게 불교를 각인하며 펼쳐졌던 셈이다.

1930년 이후 1935년까지 나혜석의 서울 수송동 생활은 각황사를 중심으로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시기였다.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나혜석은 ‘조선 사람의 몸과 마음은 번뇌의 몽텅이’라고 보고 있으며, 동시에 사물과 사물 사이에 신(神)이 왕래하는 ‘일념(一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²¹⁾ 이러한 점에서 나혜석은 불교적 세계관에 깊이 침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30년 이혼 이후 나혜석의 정신세계는 ‘예술심’과 ‘보리심’, 즉 예술심과 불심으로 지탱된 것이었다. 이는 나혜석의 후반기 생애가 예술과 불교의 병치에서 점차 불교의 세계로 더욱 깊이 침잠되는 삶으로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 「신생활에 들면서」, 『삼천리』 7-2호, 1935. 2, p.78.
서정자, 『나혜석전집』, p.537.

21) 羅蕙錫, 「설문 - 朝鮮에 태어난 것이 幸福한가 不幸한가」, 『삼천리』 6-5호, 1934. 5, p.81.

Ⅲ. 그림 여행을 통한 예술혼의 실천

1930년 이혼 이후 나혜석은 그림에 대한 열정과 투지로 불탔다. ‘역경에 처한 자의 요령은 노력과 근면’이라는 슬로건으로 치열하게 창작에 몰두하였던 것이다. 이에 나혜석은 매년 여름휴가를 이용하여 그림을 정열적으로 그리며 또 다른 변화를 모색하였다. 이에 나혜석은 1931년 금강산 만상정을 시작으로 1932년 해금강 총석정 어촌, 1933년 수덕사, 1934년 해인사 등지를 찾아 요양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주변 사람들과 격의없이 지내는 삶을 보냈다.²²⁾ 특히 1931년 여름 금강산 만물상 만상정(萬相亭)에 한 달간 머물며 크고 작은 미술작품 20점을 완성하였고, 1932년 여름에도 제국미술전람회에 출품을 위해 혼자 짐을 꾸려 명승지인 총석정 어촌을 찾아 토방 한 칸을 정해서 두 달간 숙박한 적도 있다.²³⁾

이러한 그림여행을 통한 예술혼의 실천은 1930년 제9회 조선미술전람회(선전) 입선, 1931년 제10회 선전에 특선, 1932년 제전 입선 및 제11회 선전 무감사 입선 등으로 나타났다. 나혜석은 부단한 작품활동을 통한 예술혼의 실천은 스스로 화가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행위였다.

한편 일본 제전(帝展)에 출품하기 위해 1931년 금강산 만상정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북한지역을 여행 중이던 박희도(朴熙道, 1889~1952)와 아베 미쓰이에(阿部忠家, 1862~1936) 일행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나혜석은 아베와 박희도 및 박영철(朴榮喆) 일행의 여행단에 합류하여 북청(北靑)에서부터 혜산진(惠山鎭) - 후기령(厚岐嶺) - 신갈포(新唎浦)를 거쳐 압록강 상류 지역을 함께 여행하였다. 이들과 헤어진 나혜석은 오빠 나경석(羅景錫, 1890~1959)이 고무공장을 운영하는 봉천(奉天)으로 가서 그림 전시회를 개최하고, 대련(大連)을 거쳐 국내로 들

22) 한동민, 「이혼 이후 나혜석의 삶과 투쟁」, 『경기학연구』 2, 2017, p.67.

23) 「實話 叢石亭海邊」, 『월간 매신』 1934. 8.

어왔다.

그리고 미리 약속한 아베 일행과 함께 일본 동경으로 향했다. 나혜석은 대구에서 아베 일행과 만나 경주 불국사(佛國寺)를 구경하고, 진영의 박간농장(泊間農場)을 보고, 자동차로 통도사(通度寺), 범어사(梵魚寺)를 지나 동래를 거쳐 부산에서 관부연락선을 탔다. 나혜석이 일본에 간 목적은 파리에서 그린 작품 「정원(庭園)」을 제전(帝展)에 출품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제전 출품작 1,224점 가운데 200점의 입선작에 「정원」이 뽑혔다. 당시 일본 언론을 비롯하여 국내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나혜석은 화가로 거듭나는 길로 나갈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였다.



<사진 2> 경주 불국사에서, 아베 일행 중의 나혜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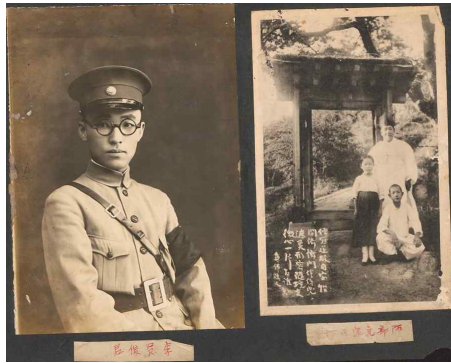
<사진 3> 불국사 호텔 앞의 나혜석

이러한 나혜석의 일본행 과정에서 경주와 불국사에서 찍은 사진이 2장이 <사진첩>에는 있다. 아베 일행과 찍은 경주 불국사 및 불국사 호텔 앞의 사진은 1931년 가을 동경으로 가는 길에 찍은 사진이라고 볼 수 있다. 경주탐방 기념사진인 셈이다. 경부철도 연선에서 자동차로 세계적인 명소인 경주 불국사와 합천 해인사를 탐승하는 것은 당대 일본

지식인들이 선호하는 답사 코스였다. 더욱이 불국사 호텔은 당시 최고급 호텔로 경주를 방문한 조선 총독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머물렀던 곳으로 유명하다.

한편 나혜석은 제국미술원 전람회(제전)에 <정원>과 <금강산 만선암>을 함께 출품해 <정원>이 입선하였다. 이 전람회 기간을 전후한 1931년 10월부터 1932년 3월까지 5개월 동안 나혜석이 도쿄에 체재할 때 아베의 도움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나혜석은 ‘아, 阿部氏는 내가 更生하는데 恩人이다. 精神上으로나 物質上 얼마나 힘을 써 주었는지 그 은혜를 이글 길이 업사외다.’라고 쓰고 있다.²⁴⁾ 동경 체류에 대한 금전적 도움에 더하여 작품 <정원>의 입선이 주는 작가로서 갱생하게 되었다는 정신적 안정감과 그림에 대한 자신감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혜석의 경주 사진 2장에 함께 한 아베 미쓰이에(阿部充家, 1862~1936)는 경성일보 사장 및 매일신보 사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신문사 사장을 그만둔 뒤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齋藤實)와 200통의 편지 왕래를 통해 핵심적 참모 역할을 한 인물이다.²⁵⁾ 아베는 조선의 귀족, 유림, 종교계, 한말 개



<사진 4> 의열단원 이현준과 제국의 브로커 아베

24) 나혜석, 「離婚告白書(續)-靑邱氏에게」, 『삼천리』 6-9호(1934. 9), pp.88-89.

25) 강동진, 『日帝의 韓國侵略政策史』, 한길사, 1980.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 연구 : 민족주의 우파의 실력양성운동론』, 역사비평사, 1992.

심원섭, 『아베 미쓰이에(阿部充家)와 조선』, 소명출판, 2017.

이형식, 「제국의 브로커' 아베 미쓰이에(阿部充家)와 문화통치」, 『역사문제연구』 37, 역사문제연구소, 2017.

혁운동가, 민족주의자, 유학생 등을 회유와 포섭을 통해 친일 지식인으로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이광수, 최남선, 최린 등을 일제 식민지 체제에 내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나혜석의 사진 앨범에 별도로 한복을 입은 아베의 사진이 있어 주목된다. 아베와 아이 2명과 함께 찍은 사진에는 아베의 한시가 쓰여 있어 아베의 문학적 면모를 자랑하고 있다. ‘무불초인(無佛樵人)’이라는 아베의 호와 함께 쓴 한시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儒冠道服自家怡
閒倚衡門伴侍兒
遮莫形容隨境變
徵心一片有惟知

유학자의 관과 옷을 입고 스스로 즐기며
사립문에 한가로이 기대어 시동과 더불어 노네.
형용은 그런대로 어쩔 수 없이 경계에 따라 변하지만
내 작은 일편단심만이 오직 알 뿐이라네.

문화상대주의자의 태도로 조선의 정신문화에 유화적인 태도를 견지한 ‘제국의 브로커’로 일컬어졌던 아베의 면목을 살펴볼 수 있다. 아베는 자유민권운동(신문기자, 국민신보 이사)과 대륙팽창주의(경성일보, 매일신보 사장), 조선의 문화통치 실현과 자치제 시행을 주장한 인물이지만 조선인 지식사회와 불교계에서 우호적 평가를 받은 독특한 위치를 지닌 인물이었다. 특히 임제종 재가 신자를 자처한 아베는 조선불교의 부흥을 통해 조선의 정신문화를 진작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나혜석 사진첩에는 <阿部充家氏一行>으로 설명이 달린 ‘아베와 아이들이 함께 찍은 한시가 적힌 사진’과 의열단원이었던 군인 복장의 <李賢俊 君>의 사진과 함께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현준은 소위 ‘황옥 사건’의 관련자로 일본제국주의의 처지에서 보면 가장 두려워하고 위협 시한 의열단원이었다. ‘제국의 브로커 아베’와 ‘의열단원 이현준’이라는 상반된 캐릭터였던 두 인물의 절묘한 사진 배치는 나혜석의 놀라운 교

이형식, 「1920년대 중후반 아베 미쓰이에(阿部充家)의 조선에서의 정치 행보」, 『민족문화연구』 78,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8.

유관계의 다양성과 자유스러운 사고방식을 읽게 한다.

이현준은 경상북도 달성군 하빈면 신리 출신으로 박기홍이라는 이름으로 1922년 7월부터 고려공산당이자 의열단원으로 활동하였다. 특히 상해와 북경 및 안동(단동)과 경성(서울)을 오가며 김원봉, 장건상, 김시현, 김지섭, 황옥 등의 연락책으로 의열단 2차 국내 폭탄반입 작전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인물이다. 이현준(박기홍)은 주로 안동(단동)에 머무르면서 나혜석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²⁶⁾

이현준은 1995년 애국장에 추서되었다. 이현준은 1922년 중국 북경의 로하중학(潞河中學) 4학년에 재학하고 있던 중 조선독립 달성을 목적으로 김원봉을 만나고 동인의 권유를 받아 의열단에 가입하여 김시현 등과 폭탄을 국내에 반입하여 관공서 폭파, 관공리 암살 등을 실행하기 위하여 활동하다 피체되어 징역 5년을 받았다. 당시 조선총독부를 비롯하여 전국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의열단 폭탄 대량반입 사건(황옥 사건)에서 이현준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던 셈이다.

안동 부영사 관사에서 나혜석의 보호를 받으며 숙식을 하였던 이현준은 나혜석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나혜석은 이현준에 대해 사진에 '의제(義弟)'로 표기하며 특별한 애정을 보내고 있다. 나혜석의 사진첩에 이현준 사진이 3장이나 있는데, 이는 가족 이외의 가장 많은 사진이다. 이는 나혜석이 갖는 이현준과 의열단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과 태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IV. 나혜석과 해인사의 풍광

1. 해인사와 나혜석 관련 사진들

26) 황용건, 「나혜석과 황옥사건」, 『나혜석연구』 6, 2015, p.126.

1936년 말까지 수원을 거처로 작품활동을 펼쳤던 나혜석은 여름이면 명승지를 찾아나서는 사생 여행을 떠났다. 1937년 초여름에도 남방순례의 길에 나섰다. 이에 찾아간 곳이 합천 해인사였다.

신록이 무르익는 初夏에 예술적 충동을 못참어 「칸파스」를 메고 水原古城을 떠나 남방순례를 나섰든 羅惠錫여사 가노라고느간 곳이 경남 陝川 海印寺. 여기에 여장을 풀고 요지간은 매일 계곡의미를 차저다니며 명작? 을 一心不亂 제작중이라든가.27)

이미 나혜석은 1936년에도 해인사를 찾았다. 나혜석의 사진첩에는 해인사 삼문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다. <해인사에서, 金日祚氏家族 金敬山, 羅>의 캡션과 함께 사진을 찍은 날짜가 1936년 6월 20일로 표기되어 있다. 1936년 6월 나혜석은 해인사에 있었다.

김일조(金日祚)는 1919년 경성 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재학 당시 최은희(崔恩喜), 최정숙(崔貞淑) 등과 함께 비밀서클 회원으로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3.1운동을 이끌었다.28)

1919년 3월 사범과를 졸업하고 1920~1922년 경남 웅천 공립보통학교 훈도를 지냈다. 이후 대구를 근거지로 대구여자청년회, 근우회에서 활동한 여성운동가였다. 즉 1928년 근우회 대구지회 발기위원이자 준비위원(규약작성 위원)으로 활동하였고,29) 1928년 2월 25일 근



<사진 5> 해인사에서, 김일조씨 가족, 김정산, 나혜석

27) 「客談室」, 『삼천리』 9-4(1937. 5), p.4.

28)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7』 삼일운동 VII, '崔貞淑 신문조서(제2회)', 1919. 6. 26.

우회 대구지회 창립 당시 19명의 위원 가운데 한 명으로 선임되었다.

나혜석은 1919년 3.1운동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구금된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최은희를 알게 되었다. 이후 나혜석은 최은희(崔恩喜, 1904~1984)를 매우 아끼는 후배로 여겼다. 이에 최은희를 통해 친구인 김일조를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수원 출신으로 순국한 이선경과 같은 학교 학우들이었다. 이선경은 1920년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재학 당시 수원 구국민단 활동으로 체포되었다가 순국하였다.

한편, 나혜석이 해인사를 자주 찾은 이유는 최범술(崔凡述)과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해인사 이고경(李古鏡) 주지 체제에서 최범술은 1934년 1월부터 1938년 초까지 해인사 법무(法務) 소임을 맡고 있었다. 최범술(최영환)은 일본 입정중학교를 거쳐 대정대학 불교학과를 1933년 졸업한 일본 유학생이었다. 나혜석과는 일본 유학이라는 공통분모와 더불어 1931년 이후 각황사 포교사로 활동한 최영환(최범술)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해인사 장경각 앞에서 찍은 <金相浩氏 一行> 사진이다. 金相浩는 ‘金尙昊’의 오기이다. 이름을 잘못 쓰고 있는 것은 나혜석과 김상호의 교류 관계가 깊지는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사진 속 인물들은 김상호를 비롯하여 나혜석, 최범술, 강유문(姜裕文), 이용조(李龍祚) 등으로 추정된다. 사진 속 김상호 일행은 1930년 7



<사진 6> 김상호씨 일행

29) ‘대구에도 근우지회’, 『조선일보』 1928. 2. 13.

‘대구에도 근우지회 설립’, 『동아일보』 1928. 2. 14.

월 결성된 만당(卍黨)의 핵심 인물들이다. 만당은 불교청년동맹의 지하조직으로 불교혁신운동을 이끌었던 인물들이다.³⁰⁾

김상호(金尙昊, 1889~1965)는 만해 한용운이 3.1운동으로 감옥에 있을 때 일본인 검사에게 조선독립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서술한 「조선독립의 서」를 이준성에게 받아 상해 임시정부에 전달해 독립신문에 실리게 했다.³¹⁾



<사진 7> 해인사 흥제암 앞의 나혜석

1919년 6월 대동단(大同團)에 가입하여 불교계의 책임자로 활동하였고, 1919년 10월 범어사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사찰재산 중에서 변출하여 상해임시정부에 헌납하였다. 1920년 7월 조선불교청년회와 1921년 조선불교유신회 조직에 참여하여 일제의 사찰령(寺刹令) 철폐운동을 펼쳤다. 1922년 서울 종로에서 용주사 주지 강대련에게 북을 지우게 한 명고축출 사건의 주동자였다. 또한 1929년 8월 하와이에서 개최된 범태평양불교청년대회에 조선불교계 대표로 참석하였고, 1930년 7월 김법린·이용조 등과 만당(卍黨)을 조직하여 불교혁신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1938년 만당사건으로 옥고를 치렀고, 1942년 10월 조선어학회사건에 연루되어 고초를 당하는 등 불교계 항일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강유문(姜裕文, ?~1940)은 고운사 승려로 호는 묵당(默堂)이다. 1931년 중앙불교전문학교 1회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하여 1934년 대정(大正) 대학 사학과를 졸업하였다. 조선불교청년동맹 동경동맹 문교부장, 불교청년총동맹 준비위원(1931. 2), 『경북불교』 편집 발행인, 1937년 중앙불

30) 김광식, 「朝鮮佛教青年總同盟과 卍黨」, 『한국학보』 80, 1995.

31) 김광식, 『만해 한용운 연구』, 동국대출판부, 2011, p.322.

전 강사, 고운사 감무, 총본산 기초위원 등을 역임하였다.³²⁾ 만당 당원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한편 나혜석이 해인사에서 머물렀던 곳은 주로 최범술의 은사 스님인 효동(曉東) 임환경(林幻鏡, 1887~1983) 스님이 주석한 홍제암(弘濟庵)이다. 홍제암에는 1612년(광해군 4) 허균(許筠)이 지은 <자통홍제존자 사명송운대사 석장비(慈通弘濟尊者四溟松雲大師石藏碑)>로 유명하다. 사명당의 존호인 자통홍제에서 홍제암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1614년(광해군 6) 혜구(慧球)스님이 사명대사의 진영(眞影)을 봉안하기 위하여 영당(影堂)을 건립한 이래 고승



<사진 8> 해인사에서 환경스님, 김경산, 나혜석

들의 영정을 모시면서 홍제암은 ‘영자전(影子殿)’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 또한 사명대사의 영당에는 ‘표충사(表忠祠)’라 불렸다. 따라서 홍제암은 해인사의 항일정신과 항일운동의 근거지 역할을 담당하였다.

김법린(金法麟), 최범술(崔凡述), 김상호(金尙昊) 등 20여 명의 청년 불교도들이 비밀리에 항일운동단체인 만당(卍黨)을 조직하였고, 당수로 한용운을 추대하였다. 만당은 최범술이 주지로 있었던 경상남도 사천의 다솔사(多率寺)를 근거지로 하여 국내와 일본 동경에 지부를 설치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조직의 목적은 민족의 자주독립이었으나 1938년 말 일경에게 발각되어 서울, 사천, 진주, 해남, 양산 등지에서 6

32) 김광식, 「한국근대불교 인물행적 기초조사록」, 『한국근대불교사연구』, 민족사, 1996, p.461.

이성수, 『20세기 전반 유학승 해외 체험과 시대 인식 연구』, 동국대 국문과 박사논문, 2021, p.351.

차례의 검거선봉으로 와해되고 말았다.

“부처님 제자들이 무슨 사상범이요? 말도 안되는 소리 마십시오.”

“조선 독립운동에 협력했다는 유력한 혐의를 포착해서 체포한 것이요.”

... 중략 ...

“중국 상해에 본부를 두고 있는 조선독립단체에서 국내로 요인을 파견, 조선 내에서 일시에 일어날 것을 독려하고 있다는 정보가 포착되었다는 구나. 그 요원들과 내통하며 독립운동자금을 걷고, 거사계획을 세운 주모자가 임환경과 최영환이라고 들었다.”³³⁾

일제는 상해 독립단체와 연결, 독립운동 자금을 걷고 거사 계획을 세운 주모자로 임환경과 최영환을 지목하고 있다. 이에 이고경, 임환경, 최범술(최영환) 등 많은 승려들의 수난을 당하게 되는데, 소위 ‘해인사 사건’이다. 이에 해인사의 이고경과 임환경도 체포되었고, 이고경은 끝내 옥사하고 말았다. 이고경(李古鏡, 1882~1943)은 1942년 12월 24일 경남 함천에서 치안유지법위반으로 체포된 후 28일 만인 1943년 1월 21일에 순국하였다. 이에 2011년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최범술은 임환경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승려이자 독립운동가다. 3·1 운동이 일어나자 독립선언서를 등사해 영남지역에 배포하다가 일본경찰에 붙잡혀 모진 고문을 당했다. 1932년 김법린 등과 비밀결사인 ‘만당’을 조직하고, 1933년 조선불교청년동맹 중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다. 1934년 사천에 광명학원(光明學院)을 설립하였고, 1936년 다솔사불교전수강원을 설립하였다. 이 무렵 김법린·김범부(金凡父) 등이 다솔사에 머무르며 활동하였다. 1937년 해인사에서 고려대장경을 인경(印經)하였고, 1943년 9월부터 13개월 동안 일본경찰에 의하여 경상남도경찰국에 구금되었다. 해방 후 1947년 해인사 주지를 맡았고, 1948년 5·10선거 당시 사천·삼천포에서 출마하여 제헌국회의원에 당선되기도 했다.

33) 김태신, 『라홀라의 사모곡』, 한길사, 1991, pp.261-263.

임환경도 1939년 음력 12월 해인사 만당(卍堂) 사건에 연루되어 합천경찰서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7개월간 구금당하기도 했다. 더욱이 1943년에는 변설호 주지가 합천경찰서의 다케우라(竹浦)와 공모하여 사명대 사비를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편 홍제암에서 나혜석과 김경산이 함께 범복을 입고 찍은 사진은 임환경 스님의 전신을 보여주는 귀한 사진이라 할 수 있다. 1936~1937년 나혜석이 해인사에 있을 때 찍은 사진으로 볼 수 있다. 1930년 중반 이후 나혜석은 삭발을 하지 않았지만 승복을 입고 생활하였던 비승비속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 나혜석의 수필 「해인사의 풍광」

해인사 생활을 보여주는 「海印寺의 風光」이라는 글이 잡지 『삼천리』 1938년 8월호에 실렸다.³⁴⁾ 이는 현재까지 나혜석이 발표한 대중적 글쓰기의 마지막 작품으로 추정된다. 이후에도 나혜석은 글쓰기를 계속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까지 공간된 작품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수필 「해인사의 풍광」은 2백 자 원고지 90장에 가까운 수필로 나혜석의 변모를 보여주는 글이다. 특히 기행문의 형식을 빌어 쓴 글로 나혜석의 ‘분노의 수사학이자 분노를 다스린 수사학’으로 평가되고 있다.³⁵⁾

나혜석은 친구의 권유로 봄과 여름 두 계절을 해인사에서 머물게 되었다. 거처는 해인사 지정여관이었던 홍도(紅濤)여관이였다. 이때 해인사 여행은 11명으로 구성된 탐방단과 함께한 것이었다. 나혜석의 글에는 해인사 홍제암에 주석하던 임환경(林幻鏡, 1887~1983) 스님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와 깊은 연결고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혜석 사진 앨범의 해인사 관련 사진은 홍제암에서 찍은 사진이

34) 나혜석, 「海印寺의 風光」, 『삼천리』 10-8(1938. 8), pp.230-243.

35) 서정자, 「편지를 계기로 다시 본다 - 나혜석의 암흑기, 그 분노의 수사학」, 『제6회 나혜석 바로알기 심포지엄』 정월 나혜석기념사업회, 2013, p.32.

많기 때문이다.

1938년 3월 해인사는 변설호(卞雪湖, 1888~1976)를 새 주지로 선출하였다.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마친 4월 31일 변설호의 주지 진산식(취임식)이 대적광전에서 거행되었다. 그러나 나혜석의 글 「해인사의 풍광」에는 변설호 주지와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나혜석의 「해인사 풍광」은 토굴생활, 여관생활, 승려생활 등의 항목을 통해 해인사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글이다. 그럼에도 해인사 주지 변설호(卞雪湖)와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은 임환경, 최범술 등 만당을 지지하는 세력과 대립되는 입장에서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이는 변설호가 1938년 4월 해인사 주지가 되기 이전에 작성된 글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혜석의 글에는 “어느덧 옥류정에 이르렀다. 이 정자는 환경(幻鏡) 법사가 건립한 것이라 한다. 정각(亭閣) 내외에는 내외국 명사의 현판이 다수 걸렸다.”고 적고 있다. 이를 통해 나혜석의 「해인사 풍광」이 작성된 시점을 유추할 수 있다. 즉 옥류정(玉流亭)은 1909년 임환경 스님이 해인사 입구 홍류동의 옛 도로와 새 도로 갈림길 지점의 좌측 물가에 세운 정자였다. 현판은 오세창(吳世昌, 1864~1953)의 글씨였고, 주련은 서병오(徐丙五, 1862~1935)의 글씨를 받았고, 전후좌우에는 우리나라 명필들의 글씨를 모각해 걸었다. 그러나 옥류정은 1936년(병자년) 여름 대홍수로 유실되었다.³⁶⁾ 따라서 홍류정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점에서 나혜석의 「해인사의 풍광」은 1936년 여름 대홍수로 홍류정이 유실되기 이전에 집필된 글이 되는 셈이다.

또한 “연일 지루하게 내리던 비가 개이매 봄 하늘은 맑다 뿐이라. 가지마다 푸릇푸릇 싹이 돋고 풀냄새가 향긋이 뿜어 들어온다.”라는 표현을 통해 해인사 봄을 보여주는 글이다. 따라서 나혜석의 해인사 풍광의 경험은 적어도 1936년 봄에 방문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36) 『幻鏡大禪師回顧錄』, 서문당, 1982, p.38.

또한 나혜석은 해인사 입구의 홍류동 계곡과 고운 최치원의 글씨와 ‘孤雲先生遁世地’와 농산정(籠山亭)과 대적광전을 설명하고 있다. 현재 나혜석의 대표적 그림 가운데 하나가 개인소장의 해인사 <홍류동 계곡>(1937)이 전한다. 농산정으로 추정되는 정자 아래로 장쾌하게 흐르는 계곡물을 잘 담아낸 그림이다.

한편 해인사 홍류동 낙화담(洛花潭) 바위 위에 앉은 나혜석 사진이 있다. 이는 시인 이동순 교수가 발굴한 것으로 대구의 원로화가 김종복으로부터 제공 받은 사진이다. 김종복의 오빠 김학봉과 함께 찍은 나혜석 사진이다. 우송(愚松) 김학봉(金學奉, 1915~2014)은 대구지역의 유지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김학봉은 후대 가수로 활동한 남인수(1918~1962)와 해인사에서 찍은 사진도 있는데, 김학봉이 22세 때인 1937년경 찍은 사진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혜석의 해인사에 머물던 시절 대구 출신 김일조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과 이들은 지역적 인적 관계로 연결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나혜석의 「해인사 풍광」은 해인사 중무소가 사운당(四雲堂)이고, 강습소가 명월당(明月堂)이며, 퇴설당(堆雪堂)이 선방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나혜석의 글은 해인사에서 전해오는



<그림 1> 홍류동 계곡(1937)



<사진 9> 해인사 홍류동 계곡 낙화담의 나혜석과 김학봉

전설과 더불어 전각과 암자를 소개하고 있다. 우선 대적광전과 장경각 그리고 전래되고 있는 귀중한 유물 및 산내 암자 구경 내용을 쓰고 있다. 첫날은 극락전에서 시작하여 회랑대, 백련암을 탐방하고 다음날은 영자전(影子殿) 즉 홍제암(弘濟庵)을 방문하여 암주인 환경스님의 좌담을 들었다. 다시 큰절인 해인사로 내려와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국일암(國一庵), 여승방인 약수암과 삼선암을 거쳐 대선암(大善庵)을 탐방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가야산 상봉을 등산하고 있다.

당시 나혜석은 해인사에서 있었던 독특한 불사 광경을 목격하였다. 즉 조선총독이 1만 원을 내서 장경각의 팔만대장경을 인출하여 만주국 황제에게 헌상하는 불사였다. 23조로 나누어 인출 검열이 있고 총독부에서 내려온 기수들과 도감은 이를 감독하고 있었다. 2개월이 넘는 불사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일화 1원, 3원씩 받는 속인들은 큰 벌이가 될 뿐 한가하던 중들도 매일 8시간씩 노동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는 상황이었다고 적고 있다. 나혜석은 부인 몇 사람과 동행하여 장경각 인출 불사를 구경 가서 보고 한번 불만하다고 쓰고 있다.

해인사 대장경 인출은 1937년 여름부터 경성제대 교수 타카하시(高橋亨)의 주도로 대장경판 목록을 정리하고, 인출 준비를 가을에 마쳤다.³⁷⁾ 이는 만주국 황실에서 2부 인출을 요청한 것인데, 총경비 3만 원이 소용되는 역사였다.³⁸⁾ 이러한 팔만대장경 인출 작업은 인경도감을 맡았던 효당 최범술은 만당의 당원들과 함께 1937년 9월부터 50일 동안 인경하였고, 11월에 <海印寺寺刊藏經樓板目錄>을 완성하였다고 한다.³⁹⁾

따라서 나혜석의 수필 「해인사 풍광」은 1936년 봄의 내용과 1937년

37) ‘滿洲國皇帝께 獻上할 千古秘藏의 大藏經 城大教授高橋博士의 손으로 騰本整理全部完了’, 『매일신보』 1937. 10. 12.

38) ‘海印寺의 八萬大藏經 滿洲國皇室에서 寫本二部를 御請求’, 『매일신보』 1937. 9. 17.

39) 최화정, 「해인학림과 만당」, 『아! 號國이여, 나라의 독립을 부르짖다 - 독립운동에 참여한 해인사 스님들』, 해인사성보박물관, 2019, p.81.

가을 내용이 혼재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V. 나혜석의 수덕사와 수덕여관 시절

김일엽이 1933년 본격적으로 출가하였고, 1934년(갑술년) 강원도 표훈사 김하엽(金荷葉, 40세)의 이름으로 안국동 중앙선원 내 부인선원의 입승(入繩)으로 동안거를 하였다.⁴⁰⁾ 이후 만공스님을 스승으로 수덕사 전성암을 중심으로 입산수도함으로써 나혜석과 김일엽의 관계에 큰 변화가 생겼다. 김일엽이 주석하던 수덕사는 나혜석이 즐겨 찾았던 곳이다. 1935년 2월 즈음 고향 수원 지동에 정착해 그림 그리기와 글쓰기로 작품 활동을 하던 나혜석은 여름이 되면 수원을 떠나 각처로 그림여행을 떠나곤 했다. 그 가운데 수덕사가 대표적이었다. 1935년 여름 나혜석은 수덕사의 김일엽을 찾았다.

蕙錫, 一葉同樓 2個月

畫家 羅蕙錫 女史는 水原故山에 歸臥하여, 彩筆을 視하더니 얼마 전에 畫材를 차져 湖嶺山川을 두루 遍巡하다가, 忠南 무슨 절에 削髮爲僧한 女流 詩人 金一葉女士를 만나 약 2개월 간이나 僧房에서 同居하다가 다시 왔다고 한다.⁴¹⁾

1935년 여름 수덕사 김일엽을 만나 2달 가까이 승방(僧房)에서 함께 동거하였다고 쓰고 있다. 그러나 실제 나혜석은 수덕여관에서 머물렀다고 봐야 할 것 같다.

한편, 1935년 2개월 동안 김일엽과 함께했던 시간은 수덕사와 수덕여관을 오가며 나혜석은 쉬지 않고 그림을 그리는 생활이었다. 쉽없이 진

40) 「安居芳啣錄(中央禪院)」, 『選佛場』, 선리연구원, 2007. p.32.

41) 「三千里機密室」, 『삼천리』 7-9호(1935. 10), p.21.

행된 열정적인 작품활동의 결과 수덕사 인근의 풍경화 40여 점으로 개인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즉 1935년 8월 24~25일 이틀에 걸쳐 예산읍 공회당 2층에서 조선중앙일보 예산지국 후원으로 나혜석 개인 전람회가 개최될 수 있었다.⁴²⁾ 그리고 그해 가을 나혜석은 1935년 10월 24일 서울 진고개 조선관에서 소품 200여 점을 대상으로 개인 전람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1930년 이래 나혜석의 그림 그리기가 치열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러나 언론을 비롯한 당시의 미술계에서 철저히 외면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는 나혜석에게 이혼보다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더욱이 1936년 가을 큰아들 김선(金宣, 1924~1935)이 12살 나이로 폐렴으로 사망하는 사건까지 겹치면서 나혜석의 정신적 고통은 더 했다. 1937년 시어머니 부음을 듣고 동래 시택으로 갔다가 김우영의 완강한 거부로 상청에서 쫓겨난 사건은 나혜석에게 출가를 결심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남자의 마음은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다. 그때 나 씨는 나를 찾아 수덕사 견성암으로 와서 머리를 깎는다는 것이었다.

그렇게도 잘났던 여인인 나혜석! 미의 화신으로 남자들의 환영에 둘러싸였던 나혜석! 최초의 여류 화가로 여류 사회를 그렇게 빛내던 나혜석! 그 여인이 자기를, 사랑이 고개 너머 상상봉까지 치켜 올라 주던 그 사회에서 밀려나서, 산중으로 나를 찾아왔던 것이다.

나를 같은 신자로 옛날 정의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몸을 의지하는 데 도움이 이 되고, 소개자가 되어 달라고 찾아온 것이다.⁴³⁾

나혜석은 수덕사 앞 수덕여관에 여장을 풀고 오랫동안 머물며 창작 활동을 펼쳤다. 이에 수덕여관에서 머무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당시 고등학생인 장욱진도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나혜석을 수덕사 경

42) ‘禮山邑公會堂에서 羅蕙錫氏個人展’, 『조선중앙일보』 1935. 8. 22.

43) 金一葉, 『幸福과 不幸의 갈피에서』, 휘문출판사, 1964(1968년 7판), p.114.

내에서 만났다.

장욱진(張旭鎭, 1917~1990)은 경성 제2고보(현 경북중고)에 진학하여 미술반에서 그림 그리는 일에 열중하면서 당시 유행하던 입체파와 피카소의 미술 세계를 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재학 중 일본인 역사 교사에 항의한 사건으로 퇴학 처분을 받은 장욱진은 1925년에 일본 동경미술학교를 졸업한 공진형(孔鎭衡, 1900~1988) 화실에서 수학하였다. 그러던 중 성홍열에 걸려 치료 겸 요양을 위해 충남 예산의 수덕사에서 6개월간 지내게 되었다. 이때 수덕사를 찾은 나혜석에게 그림에 대한 칭찬을 받아 자신의 길에 대한 신념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⁴⁴⁾ 장욱진이 제2고보를 퇴학당한 것은 3학년 때인 1932년의 일이다. 장욱진은 1936년 20세 나이로 다시 양정고등보통학교 3학년에 편입하였기 때문에 장욱진이 수덕사에서 나혜석을 만난 것은 1933년~1935년 사이의 일이다.

이 당시 나혜석은 시간이 될 때마다 수덕사와 수덕여관을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 장욱진이 6개월 동안 수덕사에서 요양하고 있는 동안 그곳을 찾은 나혜석을 만났다. 나혜석은 김일엽을 만나러 온 길이었다. 당시 김일엽과 함께, 나혜석도 입산했다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많은 파문을 던졌다. 그러나 실제 나혜석은 스님이 된 것은 아니었다.⁴⁵⁾

나혜석을 만났던 화가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정월이 일엽을 만나러 왔는데 루즈 칠한 모습을 보고 만공스님이 낮에는 절에 드나들게 해도 밤에는 절대 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그는 정통파 프랑스 화풍을 배워 그리는 방식이 매우 엄격했다. 함께 보리수 나무를 그렸다. 정월은 프랑스 인상파 초기 스타일로 그렸고, 나는 아주 간결한 선으로 그려 보였더니만 정월은 그의 그림보다 내가 그린 게 좋다고 칭찬했다.”

화가는 나혜석의 칭찬에 썩 고무되었음이 분명했다. 그러기에 1970년대 중

44) 윤열수, 「장욱진의 예술세계와 전통 민화와의 관계성」, 『장욱진과 민화』,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2016, pp.24-25.

45) 김형국, 『그 사람 장욱진』, 김영사, 1993, p.36.

반 충무로에 새로 생긴 ‘아름화랑’이 개관전을 하면서 전시한 정월의 수덕사 시절의 그림을 보고, 새삼 감회스러웠다고 말했을 것이다.⁴⁶⁾

10대의 장욱진에게 수덕사에 만난 나혜석의 칭찬은 그의 예술적 확신과 예술가적 성장에 큰 자양분으로 작용하였음에 분명하다. 일엽과 정월은 모두 신여성으로 한때를 풍미했던 사람들이었고, 특히 장욱진의 장모 조남숙(趙南淑)은 나혜석과 진명여학교 동기동창이었다.⁴⁷⁾ 장욱진은 1941년 이병도 박사의 딸딸 이순경(李舜卿, 1920년생)과 결혼하였다. 조남숙의 회고는 “정월은 미모가 출중해서 담벼락 같은 데 그 이름이 적혀 있을 정도였다.”는 것이다.⁴⁸⁾

한편 수덕사와 수덕여관 시절의 나혜석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김일엽의 아들 김태신의 『라홀라의 사모곡』(1991)이다. 김태신(金泰伸, 1922~2014)은 1922년 9월 일본인 오타 세이조(太田正雄)와 김원주(김일엽) 사이에서 태어났다. 3살 때까지 도쿄 오타의 친구 신도 아라키의 보호 아래 마사오(政雄)라는 이름으로 컸고, 이후 오타의 중학교 친구인 황해도 신천의 송기수의 양자로 입적돼 송영업(宋永業)이라는 이름으로 성장하였다. 신천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로 올라와 당대 최고의 화가 이당 김은호(金殷鎬) 화백의 양자가 되어 미술공부를 하며 김설촌(金雪村)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후 일본의 혼고(本郷)중학교를 거쳐 도쿄제국미술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하였고, 일본 대표 화가인 이토 신스이(伊藤深水)를 사사하고 일본 북종화의 전통을 이었다. 1972년 한국에 귀화하면서 김태신으로 살았고, 1987년 66세 나이에 출가하여 관옹(觀

46) 위의 책, pp.36-37.

47) 장욱진의 장모이자 사학자 두계 이병도의 부인인 조남숙(趙南淑)이다. 육군 참장을 역임한 평양조씨 조성근(趙性根)의 딸로 그의 남동생이 서울 농대 학장을 역임한 조백현(趙伯顯)이다. 이병도는 1896년 8월 14일(음력)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천리 노곡에서 충청도 수군절도사 이봉구(鳳九)와 경주김씨 사이의 5남3녀 중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48) 김형국, 『그 사람 장욱진』, 김영사, 1993, p.37.

應) 스님에게 일당(日堂)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5개의 이름을 지닌 한국 근대사의 독특한 존재였다.

김태신은 신천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이듬해 1935년 늦봄 14세의 나이에 어머니의 존재를 확인하고 수덕사 견성암 김일엽 스님을 처음 방문하였다. 그리고 1937년 4월 동경의 혼고(本郷)중학교(5년제)에 입학하고 맞은 1937년 여름방학과 1938년 1월 겨울방학에 폭설 속에도 견성암을 찾았다. 그리고 다시 1938년 2월말 봄방학을 맞이하여 다시 견성암 김일엽을 찾아왔다가 수덕여관에 머물고 있던 나혜석에게 안내되었다. 1938년 봄 나혜석과 첫 만남이었다.

얼마 전에 나혜석이라는 친구가 중이 되겠다고 나를 찾아왔느니라. 나와는 일본 유학시절의 친구다. 중이 되지 말라고 내가 말렸고, 만공 큰스님도 계를 내려주지 않았다.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 수덕여관에 머물고 있는데, 내가 소개를 해줄 테니 넌 그분과 함께 수덕여관에 머물다가 이틀 밤만 자고 돌아가거라. … 나혜석씨는 서구적인 얼굴에 우아한 아름다움을 갖춘 중년 부인이었다. … 나혜석씨는 나에게 그림을 보여주었다. 아직 표구가 되지 않은 신작 서양화였다.⁴⁹⁾

김일엽의 언급을 통해 나혜석이 승려가 되기로 본격적으로 결심하고 견성암을 찾은 것은 1937년말에서 1938년 1~2월이라 추정할 수 있다. 즉 나혜석은 해인사에서 수덕사로 근거지를 옮겨온 셈이다. ‘악의가 없는 인간이라 원심(怨心)은 없으면서도 과거의 한스러운 생각에서 끝까지 헤어나지를 못하는’ 상태였던 나혜석에 대해 김일엽은 승려가 되기 어렵다는 평가였고, 이는 만공스님도 동의하는 바였던 것 같다. 이에 만공은 일엽스님에게 “중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야. 아예 머리 깎을 생각 말고 경성으로 돌아가라 단단히 이르소”라는 말을 나혜석에게 전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49) 김태신, 『라홀라의 사모곡- 상』, 한길사, 1991, p.126.

수덕사로 입산 출가한 김일엽과의 인근 수덕여관을 근거지로 활동한 나혜석의 존재를 김태신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나혜석은 1933년 이래 불교 신자로서 사찰 순례와 명승지 그림여행을 지속해 왔다. 그 가운데 해인사 흥도여관 등을 근거지로 그림을 그리다가 1937년 말과 1938년 1~2월 사이 승려가 되기로 마음먹고 수덕사 전성암 김일엽을 찾았다. 그러나 거절당한 뒤 수덕여관에 투숙하며 창작활동을 펼치며 나혜석 후반기 생애의 ‘수덕여관 시절’을 열었다. 이렇 즈음 김태신은 1938년 2월말 처음으로 수덕여관의 나혜석을 만나게 된 것이다. 김태신은 방학 때마다 어머니를 찾았으나 일엽스님은 매서운 눈으로 대하며 만공스님 방에서 자게 하다가 이내 1938년 2월부터 근처에 있는 수덕여관으로 보냈던 것이다. 1938년 2월 수덕여관에 머물던 나혜석은 어린 김태신을 엄마의 품으로 너그럽게 받아주었다. 분노와 설움을 이기지 못해 비뿔어질 수도 있었던 김태신은 화가 나혜석의 영향을 받으며 동경제국대학 미술학과에 입학해 화가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

저녁 때 수덕여관으로 돌아오니 나혜석 아줌마는 이젤 위에 캔버스를 올려놓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작업에 임하고 있는 나혜석 아줌마의 모습은 진지했고, 열의에 넘쳤다. 그것은 낯설게 느껴지는 모습이며, 타인의 간섭을 거부하는 완강한 몸짓이었고, 내부에서 이끌거리는 혼의 투영이었다. 나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멀찍이 물러나 앉았다. 나도 문득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⁵⁰⁾

1939년 8월 어느 날 저녁 수덕여관에서 나혜석은 타인의 간섭을 거부하는 진지하고 열의에 차서 창작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김태신은 이에 감명받고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후 화가의 길을 걷게 되는 또 다른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1941년 동경미술학교 대학생이 되어 여름방학을 맞아 수덕여관을 찾은

50) 앞의 책, p.158.

김태신은 나혜석과 다시 만났다.

나혜석 아줌마는 나에게 그동안 그린 그림들을 보여주었다. … “전체적으로 색감(色感)이 칙칙하고 어둡습니다. 조금만 밝게 표현하면 어떨까요?”⁵¹⁾

나혜석은 수덕여관 시절 화가로서 작품활동을 지속하고 있었다. 동시에 김태신은 나혜석의 영향을 받았지만, 나혜석의 화풍을 비판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었고, 나혜석은 이를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이렇게 화가 김태신은 성장해 갔다. 김태신은 1942년 여름방학 때 수덕여관 나혜석을 만나 나혜석의 20호 풍경화를 선물 받았다. 1942년 여름에도 지속적인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는 나혜석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수덕여관의 나혜석을 자주 찾아온 인물로 예산 출신의 화가 고암(顧庵) 이응노(李應魯, 1904~1989)가 있다. 김태신에 따르면 1939년 겨울방학 때 수덕여관의 나혜석을 자주 찾아와 미술 관련 이야기를 많이 했다. 1942년 여름방학 때 김태신은 나혜석을 찾아온 고암 이응로를 수덕여관에서 재차 상봉하였고, 1943년 겨울방학 때에도 수덕여관을 찾은 고암 이응로를 다시 만났다는 것이다.

이응로는 1941년 가을 일본 우에노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만큼 활발한 창작활동을 펼쳤다. 이듬해 1942년 여름방학 때 수덕여관의 나혜석을 찾아온 고암 이응로에게 김태신은 “실례지만 저는 고암 이응로 선생님같이 남화(南畵)를 하는 사람들은 반성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 말하고 있다. 이에 나혜석은 이에 맞장구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고 있다.

“독일의 티우나 같은 화가는 풀 하나를 그려도 사생을 했어요. 미켈란젤로나 다빈치의 데생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아세요? 우리나라 화가들은 화가의 기본교육인 데생을 소홀히 해요.”⁵²⁾

51) 앞의 책, p.206.

나혜석은 수덕사와 수덕여관에서 치열하게 화가로서 창작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고암 이응로는 이후 1944년 즈음 수덕여관을 사서 주변 바위에 암각화를 그리기도 했고, 이후 부인이 운영하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고암 이응로의 미술세계에서 나혜석의 존재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나혜석의 숨결이 배어 있는 수덕여관은 1996년 충남 기념물 103호로 지정되어 문화재로 보존하고 있다.

김태신은 국내에 들어올 때마다 수덕여관에 기거하고 있는 나혜석을 만났다. 중학생, 대학생 시절의 김태신이 수덕사와 수덕여관을 찾은 것은 방학 때가 대부분이었다. 일제강점기 당시 학제는 3학기 제로 봄방학과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방문하였다. 방학이 길었던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이외에 봄방학 때도 수덕여관에 거주하던 나혜석을 만났다.

〈표 2〉 김태신의 수덕사 견성암과 수덕여관 방문 내용(1935~1944)

연도	내용	김일엽 만남	나혜석 만남
1935. 늦봄(14세)	수덕사 견성암, 김일엽 첫 만남 (宋滿空, 馬碧超)	1차	
1937. 4.	혼고(本郷)중학교(5년제) 입학		
1937. 여름방학	견성암 방문	2차	
1938. 1. 겨울방학	폭설 속 견성암 방문	3차	
1938. 2월말 봄방학	견성암, 수덕여관에서 나혜석 첫 만남	4차	1차
1938. 여름방학	수덕여관 나혜석, 수덕사 대웅전 보수공사 중. 김천 직지사(주지 김봉률) 방문, 西殿(조실 이탄웅), 전관웅(일본 불교대 재학) 만남	5차	2차

1938. 12. 겨울방학	수덕여관, 대웅전 공사중	6차	3차
1939. 여름방학	이당 김은호 일행과 금강산 스케치 여행, 수덕여관 나혜석, 대웅전 보수공사 완료	7차	4차
1939. 겨울방학	수덕여관 나혜석, 고암 이응로 만남	8차	5차
1940. 8. 여름방학	수덕여관 나혜석	9차	6차
1941. 3.	도쿄제국미술학교 (동양화 전공) 입학		
1941. 여름방학	수덕여관 나혜석	10차	7차
1942. 여름방학	수덕여관, 나혜석과 이응노 만남 나혜석의 풍경화(20호)를 선물받음	11차	8차
1943. 겨울방학	수덕여관, 나혜석과 이응노 만남	12차	9차
1944. 12. 입대 전	수덕여관, 나혜석 마지막 만남	13차	10차

김태신은 1938년 2월말 중학교 봄방학 때 수덕여관에서 나혜석을 처음 만난 이후 1944년 12월까지 6년에 걸쳐 모두 10차례 만났다. 이를 통해 나혜석은 수덕사를 방문하여 수덕여관에 단순히 머문 것이 아니라 수덕여관을 근거지로 삼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따라서 나혜석은 1935년부터 본격적으로 1938년부터 1944년 12월까지 수덕여관을 근거지로 삼아 치열하게 그림을 그리는 ‘화가 나혜석’으로 살았던 것이다.

VI. 맺음말

수원시립미술관에 기증된 나혜석 소장 <사진첩>의 불교 관련 사진 7점 등을 통해 나혜석과 불교와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기독교인이었던

나혜석이 1930년대 불교신자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김일엽과 수송동 각 황사의 일요강좌 및 강사 최범술 등을 통해 해인사와 다술사와 인연을 맺을 수 있었다. 또한 나혜석의 마지막 글로 평가되는 수필 「해인사의 풍광」(1938)과 해인사 관련 사진을 통해 해인사와 나혜석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만당의 핵심 인물로 해인사 범부로 활동하였던 최범술의 인연에 따른 해인사 방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홍제암에서 찍은 사진들과 홍제암 임환경 스님과 범복을 입고 찍은 사진의 존재를 맥락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한다. 최범술의 은사로 홍제암을 중심으로 활동한 임환경 스님의 전신을 온전히 보여주는 귀중한 사진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만해 한용운을 뜻을 따르던 불교계 비밀조직 만당(卍黨)의 주도 인물이었던 김상호, 최범술, 강유문 등과 찍은 사진은 나혜석의 불교계의 위상과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혜석이 친일문제에서 자유로운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한다. 최범술 등의 인연으로 해인사와 다술사를 자주 찾았던 나혜석은 변설호 주지 체제 직전에 해인사를 떠났던 것으로 보인다.

1930년 이후 서울 수송동 시절을 거쳐 적어도 1935~1936년까지 수원 지동에 거처를 마련하고 살았던 나혜석은 1936~1937년 해인사 시절을 보내고, 1937년말 1938년초 수덕사 견성암 김일엽을 찾아 입산을 타진했으나 결국 나혜석은 불문에 들지 않았다. 나혜석 사후 김일엽의 글을 통해 전후 사정을 살펴볼 수 있다. 나혜석은 “일엽처럼 나는 불교장이는 되기 싫어”, 또는 일반 지식인들처럼 “종교는 생활의 방편”이라는 말을 하였다. 더욱이 김일엽이 중될 자격이 없다는 말에 불만을 품고 도리어 “유명한 중이 두 사람이나 날 것이 싫어서 자기가 중되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김일엽은 ‘삭발은 하지 않았으며 불가에까지 들어왔다가 나간 일의 어긋짐과 더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이었던가’를 한탄하고 있다.⁵³⁾

53) 김일엽, 「不幸의 門을 두드린 두 女人- 나혜석」, 『幸福과 不幸의 갈피에

김일엽은 나혜석이 승려가 되고자 하였으나 그가 이를 반대하였다는 기록과 나혜석에게 승려가 될 것을 간절하게 말했으나 나혜석이 거부하였다는 상반된 기록을 남기고 있다. 불가에까지 들어왔다가 나간 나혜석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나혜석은 승려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수덕여관에 장기 투숙하는 삶으로 전환하며 작품 활동을 지속하였다. 나혜석의 후반기 삶에서 수덕사와 수덕여관은 결정적 키워드였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은 김태신의 기록이다. 김태신은 1938년부터 1944년까지 6년 동안 수덕여관의 나혜석을 10번을 만났다. 나혜석은 수덕사 방문객으로 수덕여관에 단순히 머문 것이 아니었다. 수덕여관을 근거지로 삼아 작품 활동을 꾸준히 지속했다는 사실이다. 나혜석은 적어도 1938년부터 1944년 해방 직전까지 수덕여관을 근거지로 삼고 치열하게 그림을 그리는 화가 나혜석으로 살았다. 1943년 나혜석은 수덕사 만공스님과 서산 부석면 간월암 복원불사에 500원의 거금을 시주하였는데, 이 돈은 서산군수가 나혜석의 작품 <독서>를 매입한 대금이라고 한다.⁵⁴⁾ 이러한 내용도 나혜석의 수덕여관 시절 작품활동의 증거가 아닐 수 없다.

한편 염상섭은 나혜석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이였다. 일본에서 함께 유학할 때부터 서로 자주 어울렸다. 최승구와의 연애와 김우영과의 결혼 과정도 잘 아는 관계였다. 나혜석은 염상섭에게 일본여자고등사범학교 출신인 조카 김숙배(金淑培)를 소개시켜 줄 정도였다.

‘그만치 난관에 봉착하여 허둥대거나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나쁜 의미로 대담하거나 후안무치하다는 것이 아닌 것은 그가 절간에 숨어

서』, 휘문출판사, 1964, pp.115-117.

54) 윤범모, 『화가 나혜석』, 현암사, 2005, p.355.

당시 서산군수는 박영준(朴永俊, 1890)으로 추정된다. 박영준은 1911년 형무소 간수로 출발하여 1922년 충남 군속으로 전임되어 부여군 서무주임, 연기군 내무주임을 거쳐 1936년 보령군수가 되었고, 1938년 12월 서산군수가 되었다.

여생을 마친 것으로 알 수 있는 일이다. 기승스럽고 남성적인데가 있고 팔자가 세다고 하겠지만 그렇기에 그러한 파국에 빠지고 만 것이요, 또 그렇기에 여성해방의 여명기(黎明期)에 예술을 들고 앞잡이로 나서서 패배와 희생에 일생을 바치고 만 것일 것이다.’⁵⁵⁾

염상섭은 나혜석을 ‘절간에 숨어 여생을 마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세속적 관점에서 이러한 평가가 나혜석의 후반기 삶에 대한 이해 방식이었다. 그러나 나혜석은 단순히 숨어 여생을 마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물론 적극적으로 평가하여 승려도 아니고 속인도 아닌 비승비속의 삶, 무소유의 대승적 삶을 살아갔던 것으로 볼 수 있다.⁵⁶⁾

적어도 나혜석은 파킨슨병으로 손떨림 현상이 심해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육체적 절망에 직면할 때까지 ‘예술혼’과 ‘보리심’을 두 기둥으로 작품활동을 멈추지 않은 화가로 살았다는 점이다. 속세를 떠나 산사 주변에 머물렀던 나혜석의 마지막 생애는 비승비속의 삶이자 치열한 창작활동을 펼쳤던 자유로운 삶이기도 했다. 1944년 10월 22일 인왕산 인근 청운양로원에 최고근(崔古根)의 이름으로 입소되었으나 여기서 탈출하여 해방 직전인 1944년 12월까지 수덕여관에서 머물렀던 나혜석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1945년의 해방은 나혜석에게 진정한 해방이 되지 못한 채 파킨슨병의 악화는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막았다. 불편한 몸은 끝내 안양에 있는 오궁선의 기독교보육원으로 보내지는 상황을 맞이했으나 나혜석은 이조차 거부했다. 끝없는 자유를 향한 탈출은 그의 예술혼과 자유를 향한 투쟁이기도 했다. 파킨슨병을 이겨내지 못한 채 1948년 12월 10일 오후 8시30분 원효로 시립 자제원(慈濟院)에서 행려병자로 죽음으로써 일반인들은 비명횡사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 나혜석을 이해할 법

55) 염상섭, 「追悼」, 『新天地』 (1954. 1)
서정자 편, 『나혜석전집』, 2013, p.776.

56) 윤범모, 위의 책, p.301.

한 염상섭마저도 불행한 패배자와 희생자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나혜석의 불행인 셈이다. 나혜석의 1930년대 이후 후반기 삶은 불행하거나 패배자의 길이 아니라 비승비속의 생활 속에서 예술가의 혼을 지닌 진정한 전업 화가의 길을 걸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삼천리』, 『신한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매일신보』
 『選佛場』, 선리연구원, 2007.
 『幻鏡大禪師回顧錄』, 서문당, 1982.
- 강동진, 『日帝의 韓國侵略政策史』, 한길사, 1980.
- 김광식, 『만해 한용운 연구』, 동국대출판부, 2011.
- 김광식, 『한국근대불교사연구』, 민족사, 1996.
- 김병익, 『한국문단사 1908-1970』, 문학과지성사, 2003.
- 김일엽, 『幸福과 不幸의 갈피에서』, 휘문출판사, 1964.
- 김태신, 『라홀라의 사모곡 - 상』, 한길사, 1991.
- 김형국, 『그 사람 장옥진』, 김영사, 1993.
-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 연구 : 민족주의 우파의 실력양성운동론』, 역사비평사, 1992.
- 심원섭, 『아베 미츠이에(阿部充家)와 조선』, 소명출판, 2017.
- 이성수, 『20세기 전반 유학승 해의 체험과 시대 인식 연구』, 동국대 국문과 박사논문, 2021
- 최은희, 『한국개화여성열전』 추계 최은희전집 4, 조선일보사, 1991.
- 권해가, 「가족이라는 경계의 안과 밖: 나혜석의 사진앨범에 대하여」, 『수원미술연구』 1, 2017.
- 김광식, 「김일엽 불교의 재인식」, 『불교학보』 72,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5.
- 윤범모, 「나혜석 탄생 120주년 기념 특별전의 의의」, 『시대의 선각자 나혜석을 만나다』, 수원시립미술관, 2016.
- 윤열수, 「장옥진의 예술세계와 전통 민화와의 관계성」, 『장옥진과 민화』, 양주시립장옥진미술관, 2016.
- 서정자, 「편지를 계기로 다시 본다 - 나혜석의 암흑기, 그 분노의 수사학」, 『제6회 나혜석 바로알기 심포지엄』 정월 나혜석기념사업회, 2013.
- 최화정, 「해인학림과 만당」, 『아! 號國이여, 나라의 독립을 부르짖다 - 독립운동에 참여한 해인사 스님들』, 해인사성보박물관, 2019.
- 한동민, 「이혼 이후 나혜석의 삶과 투쟁」, 『경기학연구』 2, 2017.

Abstract

Rha Hye-seok and Buddhism – Artistic Spirits and Bodhicitta

Han, Dong-min
(Hwasong Museum Director)

Rha Hye-seok's <Photo Album>, which was donated to Suwon Museum of Art, has about 90 photos. Through these photos, Rha Hye-seok can be interpreted in more various ways. Among the photos, there are six to seven photos related to Buddhism, including four about Haeinsa Temple, two about Bulguksa Temple, and one photo of Kim Il-yeop before becoming a Buddhist monk. Through the photos, we can find the Buddhist relationship with Rha Hye-seok. After her divorce in 1930, she began to accept Buddhism and took a Buddhist lecture at Gakhwangsa Temple (currently Jogyesa Temple) in Susong-dong and became a Buddhist in earnest from 1933. Then, as Kim Il-yeop became the monk, they were more closely connected.

Rha Hye-seok restored her pride as a painter when she was selected for Japan's Imperial Academy of Fine Arts Exhibition in 1931. She gained vitality in her new life by becoming a Buddhist. As a result, she made the 'artistic spirit' and the 'Buddhist Bodhicitta' the two pillars of her life. Rha Hye-seok visited scenic spots and temples across the country all the time to paint. She visited these places to paint and write: Mansangjeong Pavilion in Mount Geumgang in 1931, the fishing village of Chongseokjeong Pavilion in Haegeumgang in 1932, Sudeoksa Temple in 1933, and Haeinsa Temple in 1934.

In particular, Rha Hye-seok frequently visited the Sudeok Inn near

Sudeoksa Temple in Yesan, where Kim Il-yeop, the Buddhist monk, stayed. Here, she met Jang Wook-jin, Lee Ung-no, and Kim Tae-shin. She lived as a 'painter Rha Hye-seok' who painted fiercely from 1938 to December 1944, just before the liberation.

In addition, Rha Hye-seok visited Haeinsa Temple from 1936 to 1938 due to her connection with Choi Beom-sul, and there are photos taken with Buddhist monk Lim Hwan-gyeong, with Kim Sang-ho who was the leading figure of Mandang, a secret Buddhist organization, and with Mandang Party at Haeinsa Temple.

In addition, Rha Hye-seok is closely related to Haeinsa Temple in that her last writing was 「Scenery of Haeinsa Temple」.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second half of Rha Hye-seok's life was about being a painter with a brush and being a Buddhist, living a Mahayana Buddhist life of Neither Monk Nor Layman.

Key words

Rha Hye-seok's <Photo Album>, Kim Il-yeop, Sudeoksa Temple, Sudeok Inn, Haeinsa Temple, Choi Beom-sul, Mandang